
제7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일시 1957년1월16일(단기4290년) 상오10시35분

식순

1. 개회
 2. 국민의례
 3. 식사(의장)
 4. 인사
 5. 만세삼창
 6. 폐회
-

(10시 35분 개회)

○간사장 신용석; 지금으로부터 제7회임시회의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애국가제창과 국민의례가 있었음)

다음은 의장님의 식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진용; 친애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시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허다한 조례개정을 선결할 것입니다. 해방된지 12년이 경과된 오늘날 처음으로 우리 서울시민은 시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편성 심의된 예산으로 우리 자치단체를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금반 예산안은 작년말이내에 심의통과하려고 우리 의

회에서는 노력하였으나 신중과 시민의복리를 위하여 더욱 창의를 고려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연기되었음을 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우리 의원들이 시민의 다수의 지지를 받고 많은 기대를받아 시의회를 구성한 이후 부단한 노력 시민을 위한 불굴의 정열을 경주하였으나 이번 예산안을 심의하는 이 제7회임시회의야 말로 가장 시민에의 봉사하는 우리의 숭고한 정신을 발휘하는 의회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계속 의원동지 여러분이 심혈을 기울였던 시민의 복리를 염원하는 존귀한 노력이 이 회의에서 결실되며 방향이 쓰레기통에 까지도 충익할것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 예산안을 사전 심의하기 위하여 연말 연시를 불구하고 진야를 不分하고 진력하여 주신 의원동지 여러분께 感優感激을 금치못하는 터입니다.

병신년을 맞이하여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修養과 研讚에 가일층 노력하시여 우리서울시의회의 명성이 빛나게 하여주시기 바라면서 식사를 마칩니다.

○간사장 신용석; 다음은 시장님의 식사가 있겠습니다.

○부시장 신용우; 부시장이 대독하겠습니다.

신년벽두에 첫거름을 내디디게되는 오늘 임시의회 개회에 제하여 몇마디 인사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새해를 맞이한 수도서울시의 살림은 새로운 기쁨과 희망을 안고 이미 정립되어진 원칙과 계획밑에서 명량한 분위기가운데 웅건한 시정운영이 시작되고 있음을 경하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곧 자치행정에 대한 기본방향의 확립과 아울러 여러분의 힘찬 편달아래서 집행부로서의 기능을 더욱 발양하여 공공 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소치하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드리고저 하는바는 하루빨리 4290년도 예산을 심의결정 하여주시와 줄기차게 실천에 옮기도록 하여주시기를 바라오며 이번회기에 심의를 받고저하는 제반안건에 대하여는 4290년도예산에 대한 관계조례를 비롯하여 기타중요안건이 많이있아온바 損歲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회기에 있어 각위께서는 이 사안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진지하신 심의로 유종의 성과를 맺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해 연두에 의원 여러분의 다복과 건강을 빌며 이상으로서 인사 말씀에 대하고저 하는바입니다.

단기4290년1월16일

서울특별시장 고 재 봉

○간사장 신용석; 다음은 부의장 선창으로 만세삼창이 있겠습니다.

(일동 만세삼창)

이상으로서 제7회 임시회의 개회식을 끝마치겠습니다.

(10시 45분 산회)
